

## 『한민족어문학』 제83집 편집자의 말

제83집에 실린 논문은 총 11편으로 한국어교육 2편, 국어학 3편, 고전문학 3편, 현대문학 3편이다. 두 차례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을 엄정하게 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번 호에는 특정 분야에 치중됨이 없이 각 전공 영역이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편수로 게재되었다. 한편, 비록 실리지는 못했지만, 좋은 논문들 또한 많이 투고되었는데, 이들을 모두 실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다음 호에도 꾸준히 문제적이고 창의적인 논문이 지속적으로 많이 투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어교육 논문은 서만의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來着’에 대한 대조 분석 연구』, 응웬옥빈항·박덕유의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연구』로 2편이 실렸다.

서만의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來着’에 대한 대조 분석 연구』는, 한국어 종결어미 ‘-더라’와 중국어 ‘來着’의 의미, 통사적·화용적 특성, 그리고 담화기능에 대해 대조 분석을 한 글이다. 이를 통하여 ‘-더라’와 ‘來着’의 의미, 통사적·화용적 특성, 담화기능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혔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중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과 한·중 대조 분석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응웬옥빈항·박덕유의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연구』는,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재귀대명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와 베트남어 재귀 표현을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후 교수·학습 전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글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재귀 표현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당신'과 베트남어 재귀 표현 'bán thân'(반틴), 'mình'(밍), 'bán thân mình'(반틴밍), 'tự'(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양국 언어 재귀 표현을 형태 및 통사적, 그리고 의미적으로 대조했다. 대조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교수·학습 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어학 분야의 논문은 김억조의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의 인지언어학적 해석」, 서경숙의 「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정혜선의 「의존명사 '둥'의 변천과 문법 기능 변화」로 3편이 실렸다.

김억조의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의 인지언어학적 해석」은, '죽음' 관련 금기어를 대신해 사용하는 완곡어를 인지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논문이다. 이론적 배경으로 금기어, 완곡어의 개념과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의 은유, 환유 및 틀과 해석에 관해 살펴본 후 '죽음' 관련 완곡어에 관해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서경숙의 「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는, 법관의 공식적 언어 사용을 엿볼 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을 연구한 것이다. 판결서에 일본어투 표현이 유입된 배경을 살펴보고 실제 판결서에 빈도 높게 출현한 일본어투 표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세히 고찰하였다.

정혜선의 「의존명사 '둥'의 변천과 문법 기능 변화」는, 의존명사 '둥'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법 기능 변화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글이다. '둥'의 의존명사로서의 기능과 어미로서의 기능을 시기별로 고찰하였으며, 20세기 초 자료를 통해서 '-ㄴ 둥'이 간접인용 구문의 피인용절과 결합하는 기능이 새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접인용 구문에서의 쓰임은 사적으로 '-ㄴ 둥'이 자문의 종결어미로 기능하던 것과 연관됨을 논의하였다.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곽현희의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방한립전〉의 서사와 인물을 중심으로』, 김경남의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 서정현의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창선감의록〉·〈소현성록〉·〈완월회맹연〉·〈몽옥쌍봉연록〉을 중심으로』까지 총 3편의 논문이 실렸다.

곽현희의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방한립전〉의 서사와 인물을 중심으로』는, 조선후기 작가미상의 여성영웅소설인 〈방한립전〉을 하나의 금기 서사로 보고, 그 속에 나타나는 금기 양상들을 살펴본 글이다. 〈방한립전〉의 금기 서사는 금기 위반자인 방관주를 정치하면서도, 방관주의 삶을 긍정하는 양가성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양가성은 〈방한립전〉이 문학으로서 수용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이다. 당대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그 속에 금기 위반자의 욕망 어린 삶을 긍정해놓은 이 작품을 ‘금기’라는 측면에서 읽어낸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방관주의 정체성 고찰에 보다 큰 초점이 있었던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김경남의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는 유협(劉勰)의 『문심조룡』과 조선왕조실록의 ‘문체(文體)’ 관련 논쟁을 중심으로, 지식 지형의 변화가 글쓰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 글이다. 조선 시대의 문체 논쟁은 주로 과문(科文)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는데, 문체가 지식 표현의 수단이며, 이에 따라 지식 지형의 변화가 문체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본 논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현의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安南國)’의 형상과 그 의미-〈창선감의록〉·〈소현성록〉·〈완월회맹연〉·〈몽옥쌍봉연록〉을 중심으로』는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창선감의록〉, 〈몽옥쌍봉연록〉의 17·8세기 고전소설에 나타난 안남국의 형상에 주목하여, 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의 대외관과 그 문학적 형상화의 방향성을 나름의 시각으

로 읽어내고자 한 글이다.

현대문학 분야의 논문으로는 조효주의 『말할 수 없는 목소리의 ‘말하기’와 자기재현-신경림의 『農舞』를 중심으로』, 최중녀의 『이기영 소설에 나타나는 식민지 근대 여성 양상』, 표세만의 『이인직 문학의 주변-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까지 모두 3편이 실렸다.

조효주의 『말할 수 없는 목소리의 ‘말하기’와 자기재현-신경림의 『農舞』를 중심으로』는 신경림의 『農舞』에서 말할 수 없는 목소리를 가진 ‘우리’가 지식인의 ‘대신 말하기’와 ‘침묵하기’, ‘신체적 언어’라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하기’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문학작품에서 약자들의 자기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최중녀의 『이기영 소설에 나타나는 식민지 근대 여성 양상』은 이기영 소설에 관한 제반 논의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정책, 일본에서 유입된 이념과 사상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여성의 삶과 의식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표세만의 『이인직 문학의 주변-동경정치학교와 마쓰모토 군페이(松本君平)를 중심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인직의 일본에서의 학교 교육, 즉 동경정치학교와 그 주변 인물들, 그리고 교장 마쓰모토 군페이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논문으로 이후 이인직 문학 및 개화기 문학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